

테마칼럼

경제·문화·사회

예술·문화·사회

정치·경제·사회

정치·경제·사회

따스한 봄날 미술관 나들이



정금희

이 지역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는 대중들이 더 자주 전시장을 찾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전시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직접 찾아들도록 해야 한다.

가는 겨울 마지막 생김 눈이 휘날릴 때 화는 서두르듯 봄의 향기를 가져 온다. 마치 추위에 목은 시간을 털어내고 가라앉기만 한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 주듯, 그 고결하고 단아한 자태가 눈부시게 주변을 밝히면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고, 잠잠해졌던 마음이 자꾸 들쭉여진다. 추위에 얼어붙은 마음을 툭 털고 한 숨의 여유를 찾아 문화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살림살이를 점점 죄어오는 어려운 경제현실과 그림에도 여전히 물질만능의 팽창 속에서 메말라 가는 감성은 삶을 점점 힘겹게, 지치게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문화를 향유하며 감성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일까 예전과 달리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지금 서울에서는 풍요로운 미술 전람회가 열리고 있다. 덕수궁미술관에서는 '한국근현대미술전'(3월 22일), 예술의전당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전(5월 15일)' 시립미술관에서는 '프랑스 국립 공화국 특별전(3월 22일)'이 선보이고 있다. 전시장마다 수많은 관람객들로 가득 메워져 제대로 된 작품을 감상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루벤스 바로크전'이 열렸다. 어렵게 유치됐던 이 전람회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지만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절대인구 부족 측면에서 지방전이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기간과 맞물

려 상생의 효과를 노린 묘안이었지만 기대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언제 세계의 명화들이 이곳에서 다시 접할 기회가 있을지 안타깝게 느껴진다.

사실 이러한 기획전이 지방에서 개최될 기회는 많지 않다. 광주의 미술 전문가나 애호가, 학생들은 좋은 작품들을 보기 위해 상경해야 한다. 한번 갈 때마다 교통비, 관람료 등 상당한 경비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방에서 체류하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방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2년마다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광주시립미술관에는 기증받은 작품도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다양한 행사로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예전과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미술관 앞마당에서 개최되는 작은 음악회, 작곡가를 위해 매주 수요일 관람시간 연장, 어린이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있다. 특히 어린이 갤러리는 어린이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성취감, 풍부한 감성을 배양해 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미래의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점점 미술관의 역할이 대중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국립광주박물관 전시는 '탐매 : 그림으로 피어난 매화전'(3월 29일)이다. 시기적으로 적절

한 기획이다. 그리고 화랑들도 계속해서 좋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 전시들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활성화 되지 않아 대중들로부터 널리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는 대중들이 더 자주 전시장을 찾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전시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직접 찾아들도록 해야 한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고 싶다. 광주 시립미술관이 주도하고 예술의 거리 화랑가 등과 연계해서 전시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한 눈에 어디에서 언제, 어떤 전시를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소개하고 그들이 선택해서 전시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다. 3개월 간격으로 일정을 맞춰 일시에 홍보에 들어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타지역 애호가들도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전시를 위해 광주를 방문할 것이고, 이는 관광 산업으로써 연계가 될 것이다. 광주는 예향의 도시이며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진정된 향유자를 배태해온 도시다. 점점 삭막해져 가는 현실 앞에 진정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할 시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도시브랜드 가치 '꿀찌' 뭇 의미하나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6대 광역시 중 꿀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충격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도시 브랜드가 국가경쟁력이다-한국 도시 브랜드 가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브랜드 가치는 4조 원이었다. 이 같은 브랜드 가치는 울산, 부산, 인천의 3분의 1수준을 밑돌고 대구(6조 1천억), 대전 (5조8천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국내 6대 도시 가운데 광주의 경쟁력이 가장 뒤처진 것이다.

도시브랜드란 기업과 투자자, 이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낙후된 도시 이미지 쇠신과 기업유치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시마케팅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광주가 지역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

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문화중심도시 및 어드밴스 테마파크 조성,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한 도시 개발 등 각종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도시 이미지를 쇠신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세금 감면과 행정서비스의 간소화, 투자유치단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 맞춤형'을 통해 투자와 기업유치에 성공, 도시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인 대만 신주시, 중국 칭다오시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주민과 시민을 직접 연계·촉진하는 다문화 정책 강화 및 유연한 도시문화 정착도 폐쇄적이고 과격화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광주가 선진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의 총체인 '도시 브랜드' 제고가 시급하다. 지금 수준의 도시 브랜드로는 광주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3불정책' 폐지 안된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11학년도부터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교협이 11일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영삼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이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허용을 의미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제안한 것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황이 변하면 3불 정책(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 등급제)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대교협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협과 안 장관의 말을 곱씹어 보면 '변형된'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로 3불 정책을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다.

'3불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될 때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황이 변하면 3불 정책(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 등급제)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대교협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협과 안 장관의 말을 곱씹어 보면 '변형된'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로 3불 정책을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다.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11년부터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를 도입한다는 준비기간이 부족해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게다가 고교 등급제가 도입되면 서울과 수도권 이외의 지방 출신 고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의미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제안한 것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황이 변하면 3불 정책(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 등급제)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대교협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협과 안 장관의 말을 곱씹어 보면 '변형된'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로 3불 정책을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제도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고사·고교 등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현 고교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른 뒤인 2013학년도 이후의 과제로 남겨야 한다. 대교협이 지금 해야 할 일은 3불 정책 폐지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학입시 로드맵을 짜는 것이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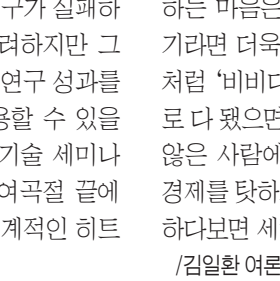
사전에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생각지 못한 귀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심리학자 용이 말한 싱크로니시티(synchronicity) 의미 있는 우연)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세렌디피티는 능력이며, 누구나 노력하면 몸에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능동적 개념으로서 우연을 불갑이 행운으로 바꾸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주변에는 세렌디피티의 사례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M사의 포스트잇을 발명한 일이다. 스티븐 실버라는 연구원이 개발한 접착제는 '잘 달라붙지만 떼면 금방 떨어지는' 이상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보통 연구자들은 연구가 실패하면 그 사실을 공표할까 꺼려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연구 성과를 원가 획기적인 상품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사내 기술 세팅에서 당당히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포스트잇은 발매가 됐고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됐다.

또 1905년 아프리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 한 광부가 일을 하다가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돌부리때끼니 생각하며 그 자리를 살펴보니 그것은 총 3천106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광부는 원석을 영국 국왕에게 보냈는데 이를 본 국왕은 "만일 내가 길을 가다가 이 돌에 걸렸다면 그냥 하찮은 유리 덩어리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원석은 여러 조각으로 분할되었는데, 그중 세계에서 가장 큰 53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누구나 행운을 갈구하는데 보통 연구자들은 연구가 실패하면 그 사실을 공표할까 꺼려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연구 성과를 원가 획기적인 상품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사내 기술 세팅에서 당당히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포스트잇은 발매가 됐고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됐다.

세렌디피티



김일환 여문예부장 kih8@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고재경

'어떤 것에 늘 마음이 끌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상태'를 집착이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은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10여 년 전에 겪었던 IMF 때보다도 더 혹독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 정권을 신선했고, 현 정부는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 등 경제살리기 대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

잔디 깎는 기계의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합부로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아내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화단에는 오십 센티미터 폭의 길이 행해져 뚫려있었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꽃들은 형편없이 내굴개쳐져 있었다. 순간 아버지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솟구치는 분노로 얼굴색이 붉게 변하고 그만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때 아내가 다가와 어찌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인지의 생각을 해봐야 한다.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는 최근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각각 지정 면적의 2~3%를 해제기로 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서 전라북도도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인접해있는 변산반도 중 서울 여의도 전체 규모(8.4km)와 맞먹는 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 폰 뜰을 위해서 국립공원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다니..

역리성을 상실한 경제성장 논리는 '돈'에 집착을 한다. 돈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어느날 아버지가 여덟 살 된 아들에게

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잊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사실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부자청년 이야기가 나온다(마태 19:16~22).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청년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에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였다.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어리석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부자청년이 바로 우리 사회이고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한다는 것을 언제쯤이나 깨닫게 될 것인가. 더 이상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돈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 보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법원 판사)

기고



민전기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2.9명으로 첫 2명대로 감소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다. 특히 실용정부가 들어서 올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원년으로 국정과제를 삼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 2년 연속 광주 지역의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6명으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

사망자 감소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노인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대한 안전운전 교육과정도 개선되어져야 한다.

도로환경요인도 크게 개선해야 한다. 1996년도 사망자 12,653명에서 2008년도 5,870명까지 감소시킨 요인중의 하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큰 효과를 있었으며,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횡단보도 LED발광장치(Crosswalk LED Lighting System) 시설물 설치 등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광주·전남 우선과제 '교통사고 줄이기'

의 1.8명보다 1.4배, 서울의 1.4명보다 1.9배 높다.

또한 전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타도에 비하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9명으로 전국 평균치 2.9명에 비하여 1.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의 특성은 크게 인적요인(운전자, 보행자)과 자동차요인, 도로 환경요인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어느 한가지로만 발생되기 보다는 3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적요인에 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교통사고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어린이의 경우 학교, 사회, 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과 정책으로 교통사고

감소한 좋은 사례 등이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중앙선침범사고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레일 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도로의 잘못된 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개선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만 한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도로환경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지사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 78개소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통관계기관에서는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교통안전정책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개선하게 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사상자 줄이기 운동' 모델이 될 것을 확신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지사장>

사망자 감소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노인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대한 안전운전 교육과정도 개선되어져야 한다.

술 덜 깬채 아침운전, 음주운전이나 매한가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새벽에 차를 끌고 나왔다. 금남로 쪽에서 좌회전을 틀어 나가다가 신호정지를 받아 있는데 옆을 보니 다른 승용차 운전자는 놀라게도 시동을 끈채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게 아닌가.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차에서 내려 그 차 운전석 차창을 두들겼다.

그가 차창을 열자 차안에서는 술냄새가 진동하고 그 운전자의 입에서도 술 냄새가

상당히 났다. 신호대기중에 잠들어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이미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약간의 잠을 잔후 새벽에 출근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전날밤 과음할 경우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에 운전하면 전날이나 다음날이나 똑같은 음주운전이 될뿐더러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기는 매한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4초치동

가계부 역할하는 통장 인색지면 늘렸으면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만 원부터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통장을 몇 개 사용한다. 그뿐 아니라 모든 통장들은 전부 다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쓰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은행의 통장은 이제 일종의 '가계부'가 돼가고 있다. 은행 계좌를 통해 월급은 물론 신용카드 비용 등 모든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략 통장

만수는 10장을 조금 넘는 상태여서 인색 면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팍 차게 되고, 그때마다 은행에 찾아가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통장을 가지고 가서 대기표를 받아 경우에 따라서는 40~50분을 기다려서 발급받기도 한다. 요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비스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 왜 통장의 인색 지면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이유를 모르겠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URL.